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12월 14일(일) 제1568호

“그리스도의 온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대학청년부, '2025 겨울사역'
12월 6일부터 '사랑앓나눔'
20일부터 '크리스마스 블레싱'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그리스도의 온기로 세상을 데운다. 2025 대학청년부 겨울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2월 6일(토)부터 '사랑앓나눔'을 시작했고, 12월 20일(토)부터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개최한다.

올해 '사랑앓나눔'에는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1,100명이 소외된 이웃 1,075가구를 직접 찾아간다. 서울 시내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 교회와 협력해 홀몸 어르신과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한다. 온누리교회를 드러내지 않고, 지역 교회와 기관 이름으로 선물을 전달한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역이다. 서울시 서초구, 강동구,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안산시, 과천시, 충청북도 단양군, 음성군, 옥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등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전개된다. 지역 교회와 군부대, 그룹홈, M센터 등을 방문해 이웃 초청 잔치, 어린이 성경학교, 마을 전도, 새벽송, 노방 찬양 등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주민 연



2025 허브대학부 '사랑앓나눔'.

합 크리스마스 예배, 군 장병 초청 집회,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등도 한다.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부장)는 “겨울이 되

면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낮은 곳을 향해 움직인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기쁨으로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

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온누리교회와 CGN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2026년 1월 6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하단 QR코드를 통해 하면 된다. 등록 시스템과정에서 제시하는 ‘1원 약정’ 문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후원은 진행되지 않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된다. CGN 후원자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단 QR코드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면 된다.

문의: 02-3215-3265(재정국)
02-796-2243(CGN)



온누리
재정국



CGN

NGO 더멋진세상,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지역 긴급구호

사이클론 ‘디트와(Ditwah)’가 휩쓸고 간 스리랑카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NGO 더멋진세상이 긴급구호에 나섰다. 수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식수와 식료품, 위생용품 등 필수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약품 지원도 하고 있다. 모금운동도 한다.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온 누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주일예배,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성탄감사찬양예배

온누리가 온 누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12월 20일(토)과 21일(일) 성탄주일예배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4일(토)까지 풍성한 성탄 축제가 펼쳐진다.

‘성탄주일예배’는 12월 20~21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드린다. 찬양사역팀이 성탄 칸타타를 선보인다. 12월 21일(일) 차세대 예배에서는 ‘성탄가정예배 가이드’가 담긴 갑티슈를 나눠준다.

12월 24일(수)에는 ‘Love Came Down(사랑이 오셨네)’을 주제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성탄절(25일)에는 ‘성탄감사찬양예배’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드린다.

미디어사역본부에서 개최하는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5’와 전도사역본부와 공동체 사역본부가 주관하는 ‘열린순예배’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5’는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성도들이 만든 그림과 사진으로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다. 60명을 선정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쿠키와 카드를 선물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크리스마스 카드(그림, 캘리그래피, 사진 등)를 직접 만들어서 제출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DM이나 해시태그(#온누리의크리스마스2025), 이메일(onnurismart@gmail.com),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본관 지하 1층, 소셜 네트워크 팀 이경희 사역자)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름과 소속 캠퍼스, 공동체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열린순예배’는 전도대상자들을 순예배에 초대해서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장(場)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와 순에서 연말까지 ‘열린순예배’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영화관, 음식점, 카페 등지에서 자유롭게 순예배를 드리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누리 아트비전에서는 정기 회원전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개최한다. 2026년 1월 4일(일)까지 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온누리 아트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소품은 작품당 2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절반을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한다. / 홍하영 기자

부천온누리교회 창립 23주년 12월 17~19일 저녁 7시 30분 부흥집회

부천온누리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부흥집회를 12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저녁 7시 30분 부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개최한다.

‘교회 너머의 교회’(벤전 2:9)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집회에서는 17일(수) 이재훈 위임목사, 18일(목)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담임), 19일(금)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담임)가 메시지를 전한다.

정재욱 목사(부천온누리교회 담임)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제주온누리교회 창립 1주년 12월 14일 오전 10시 감사예배

제주온누리교회가 창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2월 14일(일) 오전 10시 제주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노규석 목사(제주온누리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한다.

노규석 목사는 “제주온누리교회는 제주 Acts29훈련센터와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서 “선교적 사명을 더욱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빌립보교회는 다툼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데, 성육신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마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옛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품는 것이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사람은 법과 제도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고, 사람들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 마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 바깥에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와 축복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놀라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일에 매우 서툴립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을 비우시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놀라워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마음, 하나님의 겸손을 더 놀라워해야 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바울은 왜 ‘하나님의

성육신2.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의 겸손

빌립보서 2:5~11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온전히, 철저히, 꾸준히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체시다’라는 문장을 덧붙였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신을 비우셨다’는 표현으로 연결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포기하신 것을 강조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비우신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함으로써 자신을 비우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

그렇다면 무엇을 비우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 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 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 됨을 탈취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태초에 인간의 타락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됨을 탈취하려다가 추락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과 동등 된 그분이 아담이 탈취하려고 했던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우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두 갈래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본성은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권리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왜 주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네가 왜 고난을 받느냐,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사단의 유혹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가지신 분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는데, 하나님 아니면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위대한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열, 많은 죄악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취하신 세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된 분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취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종의 형체’라는 단어를 육체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점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리만 가지고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 권리는 없고 의무가 있는 종으로 자신을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신을 종의 형체로 간주하시고 여기셨습니다.

둘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되셨다’입니다. 단회적 사건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기 어려워해서 잠시 육체가 되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잠시 사람이 되셨다가 되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으로 죽게 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변질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셋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취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자신을 비우시고,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인내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을 때, 철저히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었던 점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humility’와 모욕 혹은 굴욕을 의미하는 ‘humiliation’은 라틴어 ‘humilitas’에서 나왔습니다. 왜 같은 단어에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발성에 있습니다. 힘든 일을,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한 것은 겸손이지만,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그 고난의 깊이만큼 굴욕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일임에도 하나는 겸손이 될 수 있고, 하나는 굴욕이 될 수 있습니다.

‘humilitas’라는 라틴어는 ‘humus’라는 흙, 먼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 겸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굴욕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로 ‘아담아’라는

히브리어, 흙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미네랄 성분이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을 취해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지속적인 헌신

그분의 자발적인 헌신은 ‘후회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는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게 한 힘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왔습니다(요 10:18).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요 5:30).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의지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던 많은 군중에게 자신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경외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신 겸손으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Savior)’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Lord)’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신 겸손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그분이 곧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온전히, 철저히, 꾸준히 삶 속에서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가?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성경은 이제 더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 세상은 이미 성경을 넘어섰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말할까?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은 너무도 깊고 광범위하다. 과학, 도덕, 정치, 문학, 음악, 언어, 삶과 문화의 수많은 영역이 얼마나 성경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오히려 잊어버리기 쉬운 정도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성경은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성경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면 틀린 말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성경은 서구의 정신을 형성했고, 지금도 계속 형성하고 있다. 서구 사회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 인권, 보육원, 병원, 여성의 권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 노예 제도와 소아성에 같은 악에 대한 반대 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무신론자 역사학자인 톰 홀랜드는 자신의 책 〈도미니언〉에서 이 모든 가치가 기독교가 세상에 끼친 영향에서 탄생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생각은 결코 자명한 진리가 아니었다. 로마인이 이 생각을 들었더라면 비웃었을 것이다. 이 원리는 프랑스 혁명에서도 아니고, 미국 독립선언에서도 아니며, 계몽주의에서도 나오지 않

았다. 그 기원은 성경에 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도덕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성경의 사상은 어거스틴, 초서, 셰익스피어, 밀턴, 디킨스, 도스토옙스키, 멜빌, 마크 트웨인 같은 작가들뿐 아니라 마거릿 앳우드, J.K. 롤링 같은 현대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또한 성경에 의해 형성되었다. 번역자들은 성경의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영어, 독일어, 다른 유럽 언어들을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했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비살 망갈와디는 “성경이 현대 서구를 읽고 사고하는 문명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둘째, 현대 과학은 성경적 전제에서 태어났다. 현대 과학의 창시자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다. 블레즈 파스칼,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로버트 보일, 그레고르 멘델 같은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자신의 발견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다고 믿었다. 과학철학자 스티븐 마이어는 이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특정한 전제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방법 자체는 세상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 믿음들은 성경에서 나왔다. 이것이 바로 경험 과학이 오직 기독교의 바탕을 둔 서구에서만 등장했고, 그곳에서 꽃

피울 수 있었던 이유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마이어는 이렇게 설명한다.

“세상을 만든 지성에서 비롯된 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일관성과 질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인간이 그 질서와 일관성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전제들이 바로 현대 과학의 기초를 이룬다. 과학은 성경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그 자체가 성경 덕분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셋째,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며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 약 24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어떤 종교보다 많은 수치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에 따르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수만 해도 1970년 이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그들 중 77%는 글로벌 사우스, 즉 남반구 지역에 살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수는 30억 명을 넘길 거로 예상된다. 그중 3분의 1은 아프리카에 있을 것이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의 그리스도인 수가 미국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들은 모두 성경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라이프웨이는 2025년까지 해마다 1억 1천

만 권의 성경이 인쇄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현재 매년 인쇄되는 수보다 1천5백만 권이 더 많은 수치다. 성경은 이미 7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2038년 이후에는 지구상의 모든 문자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시 말해,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책이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비록 서구 사회에서는 성경이 인기를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는 서구의 삶과 세계관, 정의와 인권에 관한 생각이 모두 성경적 사상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점점 더 의미를 잃어가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누군가 “성경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서구의 정신을 형성했고, 지금도 형성하고 있다.”

“현대 과학은 성경적 전제에서 태어났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며,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문: 콜슨 센터 유튜브 채널 'What Would You Say?'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음식

건강한 탄수화물, 빛의 축복



김희준 성도
(중종로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점심을 먹고 나서 한두 시간쯤 지나면 눈이 스르르 감긴다. 업무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괜히 커피 한 잔이 간절해진다. 밥을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릴까? 이 단순한 질문 속에는 사실 인류의 식탁 역사와 생명 과학의 비밀이 숨어있다.

밥 한 공기, 즉 탄수화물에는 단순한 열량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안에는 빛의 에너지, 곧 하나님이 세상에 비추신 빛의 흔적이 담겨 있다. 태양 빛의 알갱이가 식물의 잎 속 엽록소를 건드리면 전자가 튀어 오르게 되고, 이 전자의 에너지가 탄소와 수소를 붙여 ‘포도당’이라는 작은 당분자를 만든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건 태양 속 빛의 알갱이가 수천km를 날아와 우리 세포 속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는 일이다. 그 빛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변해 우리를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고, 사랑할 힘을 준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 빛의 질서를 만드셨고, 그 질서를 우리 안에 새겨두셨다.

문제는 이러한 ‘빛의 축복’을 우리가 육신의 에너지로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은 곡식과 열매를 주셨다. 그 속에는 당, 섬유질, 무기질, 비타민이 조화롭게 들어 있었는데, 인간은 그중에서 단맛만 뽑아내 ‘정제된 당’을 만들었다. 천연의 탄수화물이 ‘균형의 예술’이었다면, 정제된 탄수화물은 ‘쾌락의 추출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인체에 그대로 드러난다. 자연 속의 포도당은 서서히 흡수되어 혈당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당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혈당을 올렸다가 곧바로 떨어뜨려서 피로와 졸음, 폭식과 불안, 중독을 일으킨다. 이런 현상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 불균형해졌다는 몸의 신호가 아닐까.

이 시대를 장악한 ‘더 빠르게, 더 쉽게’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을 조금씩 파괴해 왔다. 우리의 식탁이 탐욕의 속도에 맞춰질수록, 세포의 시계는 어긋나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졌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의 질서를 어긴 영적 피로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의 질서를 멈추지 않으신다. 인간이 창조 질서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그 질서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매일의 식탁을 통해 구속의 리듬을 이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단지 곡식을 주시는 것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깨어진 식탁 자체를 회복시키신다. 자연의 은혜를 넘어 그분은 은혜의 중심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새롭게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분 안에서 인간의 식탁은 다시 은혜의 식탁으로 회복되었다.

사실 탄수화물의 대사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다. 먹고, 쓰고, 쉬고, 회복되는 이 과정은 마치 〈창세기〉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워두신 생명의 순환 리듬과 닮아있다. 문제는 현대인이 그 리듬을 깨버렸다는 것이다. 밤늦게 먹고, 움직이지 않고, 정제된 당으로 순간의 피로를 달래는 삶을 반복하는 나쁜 습관이 결국 세포의 시계를 망가뜨린다. 탄수화물은 본래 생명의 축복이지만, 절제 없이 사용될 때 혼돈의 에너지가 된

다. 과잉된 당분은 남아서 지방으로 저장되고, 혈당의 불안정이 지속하면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을 벗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건강한 탄수화물은 무엇일까? 정답은 이미 성경에도, 자연에도 나와 있다. 곡식, 섬유질, 그리고 절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탄수화물이 비로소 완성된다. 현미, 보리, 통곡물, 콩, 과일과 채소는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우리 몸의 리듬과 조화롭게 작용한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되 탐욕을 부추기지 않는 조화로운 형태로 음식을 설계하셨고, 우리가 먹는 행위를 통해 절제와 감사를 배우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 그 단순한 행위가 사실은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연습일지도 모른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빛으신 생명의 순환에 참여하는 순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행 14:17).



“하나님 은혜 나누는 장로”

강석훈 장로
(서빙공동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제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제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동체를 비롯한 주위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달려가는 장로”

강찬욱 장로
(이촌공동체)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으로 달려갑니다. 저의 목적지는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 되는 장로”

고영대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할렐루야! 저를 장로로 부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사랑하는 장로”

구경용 장로
(도곡공동체)

할렐루야! Acts29 비전을 써 내려가는 온누리교회의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고, 쓰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장로”

국중대 장로
(관악금천공동체)

부족한 자를 주님의 종된 장로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도록 기도드립니다.

“겸손과 성실로 순종하는 장로”

김동섭 장로
(강서공동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뜻과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고, 섬김이 복임을 항상 기억하며, 맡겨진 사역에 마땅히 행할 바를 겸손히 그리고 성실히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장로”

김동수 장로
(영등포로공동체)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화평과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고,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함께하는 따뜻한 장로”

김동준 장로
(양재A공동체)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 품는 장로”

김동환 장로
(마포공동체)

장로사관학교를 통해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예배와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워가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제 섬김과 낮아짐으로 한 영혼을 품는 장로로 헌신하겠습니다.

“순종, 믿음, 기도로 나아가는 장로”

김선귀 장로
(이촌공동체)

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매사에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넘치는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장로”

김영생 장로
(대전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MZ세대의 본이 되어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충성과 사랑으로 섬기는 장로”

김의래 장로
(사회선교본부)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겸손히 섬기는 장로”

김진현 장로
(신용산공동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 안에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순종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

김태형 장로
(부천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장로”

김희식 장로
(동작공동체)

부족한 자를 장로로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라는 뜻을 깨닫습니다. 그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장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장로”

남윤영 장로
(당회운영위원회)

고난받는 예수님을 만나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용조 목사님, 김영길 장로님, 교회의 선배님들처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복음을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웃는 장로”

노전기 장로
(일산파주공동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웃는 교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섬김과 낮아짐의 장로”

노지준 장로
(서초D공동체)

장로로의 부르심은 섬김과 낮아짐으로의 부르심임을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도님들을 성심으로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장로가 될 것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통로 되는 장로”

박건용 장로
(과천의왕공동체)

늘 하나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공동체에 덕과 유익을 끼치며,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 되겠습니다.

“기쁨과 웃음 넘치게 하는 장로”

박기일 장로
(OCC공동체)

불신 가문의 첫 장로로서 온 가족에게 빛을 전하겠습니다. 섬기는 곳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겸손히 앞드리는 장로”

박명신 장로
(김포공동체)

물 떠온 하인의 순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무익한 종의 모습을 따라 겸손히 앞드리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온유와 사랑, 기쁨으로 섬기는 장로”

박복웅 장로
(성북공동체)

부족한 저를 은혜로 불러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을 온유와 사랑과 기쁨으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담대히 믿음 지키는 장로”

박승병 장로
(송파B공동체)

연약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생명과 화평을 전하는 장로”

박언용 장로
(서초C공동체)

기도한 후에 머리와 손발을 움직이고, 사역은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경건 생활을 지키고, 생명과 화평을 위치한 자리마다 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 따르는 장로”

박태성 장로
(당회운영위원회)

자격 없음을 깊이 느끼며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로 마음을 밝히고, 순종의 걸음을 배우며, 썩어지는 작은 밀알로 조용히 주님의 길을 따르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섬기는 장로”

박태식 장로
(송파A공동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리는 처음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는 장로”

박태준 장로
(부천온누리교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에 본이 되는 복음의 증거자, 교회와 더불어 감사와 희락을 누리는 장로되길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곳에서 의를 이루는 장로”

박효신 장로
(부천온누리교회)

부르심에 순종하여 공동체와 협력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장로”

배창준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장로”

송영봉 장로
(전도사역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신 은혜에 힘입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는 장로”

신현식 장로
(강남A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베푸신 긍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장로”

신현일 장로
(가정사역공동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장로라는 무거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장로”

안연환 장로
(S브릿지공동체)

부족한 저를 장로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장로”

오세현 장로
(인천온누리교회)

은혜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신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거룩함 붙드는 장로”

우승엽 장로
(분당A공동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내게도 중요한가?”
날마다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사랑과 거룩함을 붙들고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 전파하는 장로”

우시정 장로
(부천온누리교회)

부족한 자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늦은 오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장로”

유우선 장로
(양지온누리교회)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이끄심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과 긍휼로 섬기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장로”

이봉길 장로
(예배사역본부)

부족함에도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듯해서 떨리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과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의 본을 보이는 장로”

이상준 장로
(서초B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된 일꾼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본을 보이며 양무리를 가르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는 장로”

이재욱 장로
(당회운영위원회)

부족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좋은 장로로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 감당하는 장로”

이주호 장로
(찬양사역공동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지체들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장로”

임창우 장로
(강동온누리교회)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택하는 장로”

장관수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교회와 공동체에 헌신하고, 나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운운한 마음으로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장로”

장성수 장로
(분당B공동체)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에게도 칭찬받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와 헌신 아끼지 않는 장로”

장승훈 장로
(용산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장로가 되기 위해 저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바라보는 장로”

전영한 명예장로
(중종로공동체)

마귀가 짙 찬 세상에서 풀 같은 말씀으로 임하시니 꿈 같은 세상이 보이고, 저 같은 죄인을 종으로 부르시니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꿈 같은 그날에 그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장로”

전진국 장로
(당회운영위원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섬김의 자리에서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믿음을 다지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겸손히 섬기며,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장로”

정기삼 장로
(이수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부어주신 크신 은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끝까지 준행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장로”

정남식 명예장로
(서초B공동체)

하나님께서 “너의 명예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겨자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장로”

정몽준 명예장로
(중종로공동체)

저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더 나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섬겨주신 선배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제 아내 김영명 권사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예장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장로”

정민호 장로
(인천온누리교회)

부족한 저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장로”

정용주 장로
(양재B공동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 6:33). 이 말씀 붙들고 장로사관학교의 훈련 과정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좋은 교회 지어가는 장로”

정재환 장로
(양육사역본부)

새로운 40주년을 앞두고 장로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장로”

정탁영 장로
(고양은평공동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마음 다하여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장로”

주영창 장로
(강남B공동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위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 증거하는 장로”

지상목 장로
(서초A공동체)

작은 어려움에도 놀라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험한 큰 감동 전하는 장로”

최병선 장로
(양천공동체)

걱정과 기대 속에 시작된 길, 엄격한 훈련의 여정 속에서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배우며, 깊은 영성과 따스한 감성의 동역자들에게서 큰 감동을 경험한 복된 결임이었습니다.

“교회에 작은 기쁨 되는 장로”

최이정 장로
(대전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진지함 속에서도 유연함을 잃지 않고, 기도와 사랑, 겸손과 미소로 교회에 작은 기쁨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품은 장로”

최종필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25 장로사관학교’를 은혜롭게 수료하고 장로 장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겸손하게 장로의 사명을 신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감투보다 십자가 택하는 장로”

최준영 장로
(당회운영위원회)

부족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투보다 십자가를, 명예보다 섬김을 택하며 온누리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장로”

하갑천 장로
(인천온누리교회)

은혜 가운데 장로사관학교 훈련 과정을 받게 하시고, 장로 장립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장로”

하태승 장로
(강남D공동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겸손과 사랑의 본이 되는 장로”

한상천 장로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 공동체, 교회를 기쁘게 섬기며, 권위가 아닌 겸손과 사랑으로 본이 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 기도로 격려해준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는 장로”

홍호식 장로
(회복사역본부)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사관학교를 통해 다방면으로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깨달은 대로 온유와 사랑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2025 온누리교회 신앙 리포트 '세대를 잇는 복음' 신앙 인식조사

① 신앙의 구조 그리고 가치관 ② 미래 신앙 과제는 무엇인가?

온누리교회 신앙의 구조 그리고 가치관

인구통계, 복음 인식과 실천, 창조 질서와 성 가치관



박태성 장로
(온누리교회 미래성장
위원회, 서초A공동체)

온누리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이 40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진 시간이었다. 1985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시작한 작은 교회는 복음과 선교의 열정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복음공동체로 성장했다. 이제 온누리교회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음세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더 깊은 질문 앞에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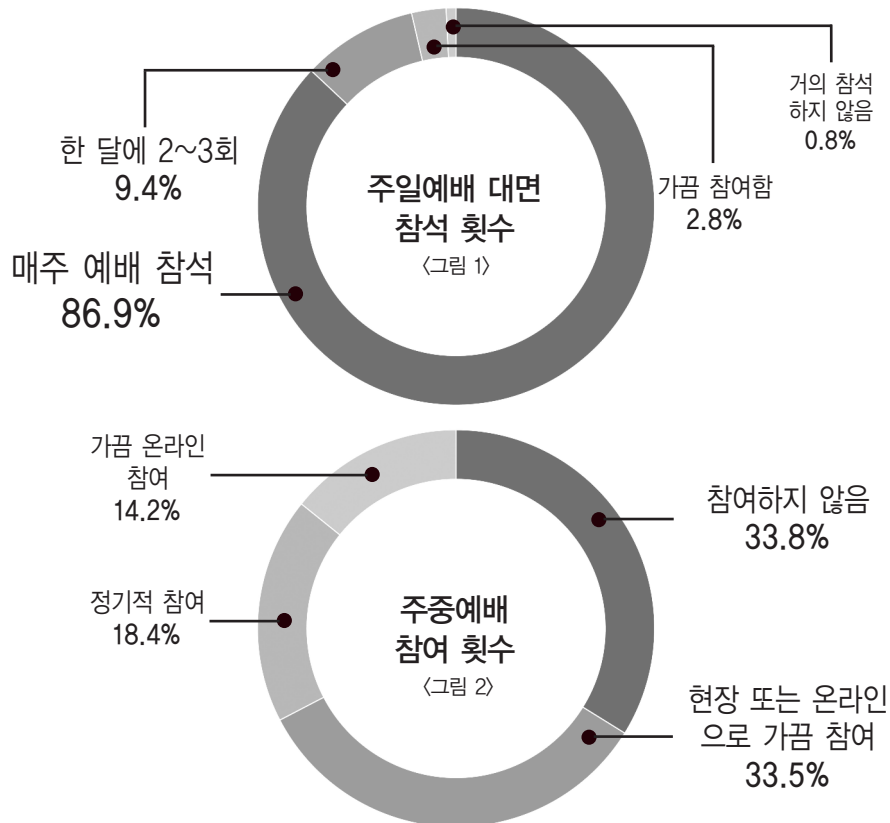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에서 ‘세대를 잇는 복음’을 주제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신앙 인식 조사(OFFC, 2025)’를 실시했다.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는 과정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 소속 성도 총 4,490명이 구글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 조사는 여섯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 교회의 핵심가치(복음 인식), 창조 질서 및 성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AI 시대의 신앙, 신앙 유산이 그것이다. 각 세션은 온누리교회의 정체성과 사역 방향을 점검하는 하나의 렌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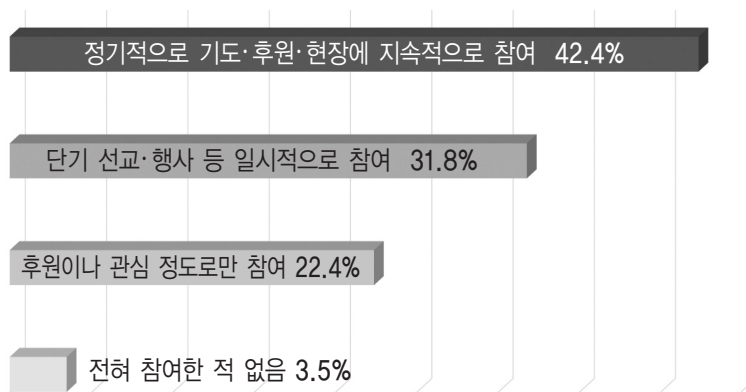
복음의 뿌리와 간극

첫 번째 분석 영역은 ‘인구통계’에 대한 질문이다. 설문 조사 참여자 4,490명 중에서 남성 1,460명(32.5%), 여성 3,030명(67.5%)으로 여성이 더 높은 참여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 참여 비율을 보면, 50대가 31.8%로 가장 높았고, 60대 21.3%, 40대 15.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남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40대 26%, 3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온누리교회 출석 연수는 20년 이상이 28.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15~19년(19%), 10~14년(17%) 순으로 장기 성도가 많았다. 신앙생활 연수는 40년 이상 44%, 30~39년 22%, 20~29년 16%로 나타나 장기 성도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결혼 여부는 기혼 83.9%로, 미혼(12.2%)보다 크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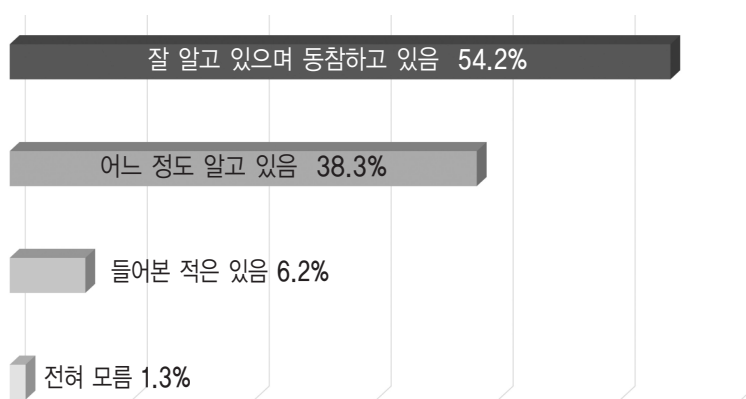
신앙의 성숙도를 1~4단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응답자 40%가 3단계, 응답자 39%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고백한 성숙한 신앙 단계인 4단계로, ‘고(高) 신앙’ 단계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많고 교회 출석 연수와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온누리교회 출석 연수가 길수록 4단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교사역에 참여한 경험 여부 <그림 3>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Acts29)의 이해와 동참 여부 <그림 4>



신앙단계별로는 1단계에서 남성 비율이 41%로 가장 높았고, 2~4단계에서는 29~35%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세대별 신앙의 깊이 차이와 함께 복음 전수의 구조적 필요성을 드러낸다.

“주일의 고백에서 월요일의 제자로”

두 번째 분석 영역은 ‘성도들의 복음 인식과 신앙 실천’에 관한 것이었다. 설문 조사 응답

자 95%가 복음의 핵심을 “죄 사함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명확하게 고백했다. 예배도 응답자 85.7%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주일에배 대면 참석률은 86.9%로 매우 높았으나, 정기적인 주중예배 참여율은 18.4%로 급감하였다(그림 1, 2).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3.8%로 높게 나왔다. 매주 주일에배 대면으로 참석하는 응답자들만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주중예배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7%로 나와 “정기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 17.5%보다 훨씬 높았다.

선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90.6%가 선교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고백했다. 그러나 응답자 42.4%만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림 3). 즉, 선교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으나 이를 삶 속에 실천하는 실천력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6.3%가 “삶의 모든 영역을 선교적 소명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 ‘Acts29’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동참하고 있다”는 응답도 54.2%에 그쳤다(그림 4). 이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깊지만, 삶으로의 확장력이 제한적임을 나타낸다. 예배와 일상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고, ‘삶이 선교가 되는 교회(Acts 29)’라는 비전은 이 간극을 메우는 신앙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일의 고백에서 월요일의 제자로 나아가야 한다.

진리를 품은 사랑의 교육

세 번째 분석 영역은 ‘창조 신앙과 성 가치관’이었다. 응답자 92.4%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으며, 94%가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했다. 동성애,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교회는 “성경적 진리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85.3%였다.

결혼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96.2%가 “결혼은 하나님의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언약적 관계”라고 응답했다. 성적 순결의 중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94.6%였고, 자녀의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과 성경체성에 대한 교육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92.1%, 80.7%에 달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온누리교회는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도 창조의 진리를 견고히 붙드는 교회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에서 창조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지키고, 그 진리를 사랑의 언어로 세상과 나누는 소통력은 더 깊이 갖춰야 함을 시사한다(계속).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 김미애 국회의원 주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정책세미나가 지난 12월 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하고, 국민의 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미애 국회의원, 이재훈 위임목사(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온누리울타리), 이상을 장로(제이흙), 김영석 팀장(제이흙)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미애 국회의원은 “모든 생명은 동등하게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이 관점에서 지금의 논의가 더욱 건강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우리는 생명



지난 12월 8일 열린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정책세미나.

을 보호하고,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위기 임신 여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신부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장로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65세 미만 온누리교회 장로가 대상이다. 합창단이나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 전공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오디션은 1월 31일(토)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성가대실에서 실시한다. 장로합창단 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는 2026년 1월 10일(토)까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10-5264-1191

‘어? 성경이 읽히지 않네! (구약)’ 참가자 모집

‘어? 성경이 읽히지 않네! (구약)’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6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월 7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5만원. 구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백경숙 전문강사가 강의한다.

문의: 010-2579-9589

본부 139기 두란노 어머니학교 모집

본부 139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6년 1월 6일(화)부터 15일(목)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월 6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원.

양재 연합 전도집회 ‘Christams Concert Noel’

12월 21일 오후 7시 양재 사랑홀

양재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연합 전도집회 ‘Christams Concert Noel’을 개최한다. 12월 21일(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린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임)가 설교하고, 송영주트리오, 존노,

송지은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성탄 뮤지컬도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양재온누리교회 성도가 대상이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 법조인 모임(OLF) 창립예배

1월 20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

‘온누리 법조인 모임(Onnuri Lawyers Forum, OLF) 창립예배를 오는 1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다. 온누리교회 소속 법조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온누리 법조인 모임은 2025년 열린 ‘법조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모태다. 자발적으로 모인 법조인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

고, 기독교 법조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명을 함께 이루고자 만든 신앙공동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직업과 상관없이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찬기도회, 말씀나눔, 북클럽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QR코드를 참고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여성사역본부 ‘2026 마리아 성경통독’

1월 5일부터 2주 동안 월, 화, 목, 금요일

여성사역본부에서 ‘2026 마리아 성경통독’을 한다. 2026년 1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2주 동안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신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1주차 5일(월), 6일(화), 8일(목), 9일(금), 2주차 12일(월), 13일(화), 15

일(목), 16일(금) 총 8일 동안 이어진다. 수요일은 여성예배가 있는 수요일에는 통독 모임이 없다. 다른 캠퍼스 일정은 하단 QR코드를 참고하면 된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다. 선착순 120명을 모집한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지구촌 이웃에게 나눔과 위로를!”

‘NGO 더멋진세상’ 15주년 임시총회 및 감사예배

NGO 더멋진세상 15주년 임시총회 및 감사예배가 지난 12월 9일(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4층에서 열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 및 실행위원,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나눔과 위로’ (행 4:32-37)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NGO 더멋진세상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관”이라면서 “앞으로도 〈사도행전〉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으며, 이웃들에게 나눔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가 지난 2010년 설립한 국제개발 NGO다.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엔젤 러브레터, 딱 당신을 위한 자리!

12월 20일 오후 12시 두란노홀 ‘강동 맞춤전도 음악회’

강동온누리교회가 지역 주민과 새신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맞춤전도 음악회 ‘엔젤 러브레터, 딱 당신을 위한 자리’를 개최한다. 12월 20일(토) 오후 12시 강동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맞춤전도 음악회 ‘엔젤 러브레터, 딱 당신을 위한 자리’에서는 점심식사, 교제, 하모니카 추억의 동요, 찬양, 레크리에이션, 색소폰&오카리나 연주, 크로마하프 연주, 말씀, 소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이름, 공동체, 연락처, 전도대상자 이름, 성별, 연령대, 기도제목 등을 기록하면 된다. 복음을 선물하고 싶은 성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CCF ‘더 멋진 당신’ 콘서트 ‘The Open Door’

이재훈 위임목사 등 462명 참석, 91명 결신

CCF(Christian CEO Forum)가 주최하는 CEO 맞춤전도집회 ‘더 멋진 당신’ 콘서트가 ‘The Open Door’를 주제로 지난 12월 7일(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목사, 이재욱 회장, CCF 관계자 등 462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도대상자 91명이 결신했다.

이번 ‘더 멋진 당신’ 콘서트는 김수, 뮤지컬찬양팀, 존노 특순, 이재

욱 회장(CCF 회장) 인사, 이경민 의장(핵토그룹 회장), 정수현 대표(LG 사이언스 파크) 강의,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박종길 목사 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소망으로 이끌며, 영원한 길을 열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지혜 기자

“교회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팀 첫 ‘블레싱 투게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팀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정을 격려하는 첫 번째 ‘블레싱 투게더(Blessing Together)’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2일(토) 오전 10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과정을 밟고 있는 20가정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모 대표 홍정옥 집사, 학생 대표 어린이 일대

일제자양육 1기 수료생 김예찬 학생이 간증했다.

장보원 팀장(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단한 가정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려고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자녀 양육과 신앙 전수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을 부모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짊어지겠다”고 약속했다.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로칼럼

구원은 누구에게

서성현 장로
(경기A공동체)

사람이 지나간 뒤에는 발자취가 남는다. 그 발자취로 앞서간 이의 인생을 평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과 발자국을 훗날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까?

조금은 두렵고 조심스러운 질문이다.

그렇다고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위선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위선과 교만, 게으름과 탐욕, 고집과 거짓, 욕망으로 가득했던 지난날 나의 모든 행적을 알고 계시는 그분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욕망 속에 담긴 선한 동기부터 선한 일 속에 숨어 있는 불순한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머리카락 한 올도 숨길 수 없는 참으로 미미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음흉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인생을 위해 몸을 던지셨을까? 그 사랑과 희생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뜻하지 않게 나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때 겨자씨만 한 작은 믿음의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을 뿐인데, 무심코 책장을 넘기다가 한 문장을 읽었을 뿐인데, 그 작은 사건조차 그분 앞에 기억되었다.

라합도 그랬다. 자신의 신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도왔던 단순한 행동으로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님 가문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의 피 묻은 동전을 탐하고, 정의와 양심보다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좇았던 삭개오도 마찬가지다. 지나가던 예수님을 먼발치에서라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랐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구원받은 자로 성경에 기록되었다.

사람을 숨겨준 기생 여인도,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장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발자취를 따지지 않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 품위 있는 종교 지도자나 저명한 학자들의 발자취가 오히려 위대한 것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 배척당했던 이들의 발자취를 보시고 ‘잃어버린 자’ (눅 19:10)라 부르셨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힌 자, 외면당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흉악하고 처절한 십자가를 몸소 지시며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 예상치 못할 때,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고 계신다.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오직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은혜라고 기억한다. 믿는 자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누리는 영적 축복을 얻게 된다. 산불과 태풍, 비바람과 극심한 눈보라가 삶 가운데 불어닥친다 해도 그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과한 자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된다. 그렇기에 구원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분은 나의 발자취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어쩌면 바보 같은 분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한 분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다. 내 삶의 면면을 따지지 않으시고, 나를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신다.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견디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족적을 남기기 위해 온갖 눈치와 핍박을 버텨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의 발자취조차 굳이 지켜보지 않으시는 그분의 품에 맡없이 안기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잃어버린 나를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권사칼럼

엄마께 드리는 그리움

허미혜 권사
(서빙고공동체)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와 볼을 맞대고, 눈과 코, 뺨에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물기 어린 엄마의 눈동자를 오래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드렸다. 문득, 이 시간이 엄마와 단둘만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순간임을 깨달았다.

“엄마, 고맙고 사랑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이젠 그만 오시구려’ 하세요? 이 손으로 꽃꽂이도 하고, 포도즙과 화관도 만드셨지요?”라며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새 엄마의 손이 내 손목을 꼭 잡고 계신 게 느껴졌다. 이제 몸의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지 여러 달이 지났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 다만 엄마가 너무 힘든 고통 속에 계시지 않기를 바라며 편히 하나님의 안식에 드시기를 소망했다.

엄마를 8여 년 동안 모시면서 얻게 된 행복과 기쁨은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 믿는다. 힘들 때마다 예배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인도하심은 벅찰 정도였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유석인을 너(미혜)의 손과 발을 통해 섬기고 사랑하여라. 내 대신, 나의 손과 발이 너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하는 내 딸을 섬겨주었으면 좋겠다. 섬기기를 원한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너의 심정과 괴로움, 힘든 것, 다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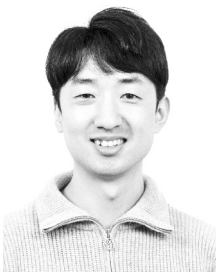
육화의 참된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나는 그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교회 문을 나서며 하늘을 날 것 같은 마음으로 평평 울며 집으로 뛰어갔다. 또 한 번은 성찬식 중에 “내 딸 유석인은

내가 내 피 값을 주고 산,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어 하나님은 “석인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너도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여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세세하고 진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다. ‘내가 엄마를 목욕시켜 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바로 그 자리 또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구나!’ 이 깨달음 앞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듯했다.

그렇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엄마의 입원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 일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엄마와의 진정한 회복을 바라시고 그것의 실행과 발현을 원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통해 엄마를 섬길 수 있었다니, 이 얼마나 영광이며 기쁨인지 모른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나의 죄인 된 연약함 때문에 부족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은 너무도 행복하고 값진 시간이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아마 이 글을 아빠와 함께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깊이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두 엄마와 아빠가 살아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저희를 살펴봐 주세요. 두 분이 하나님과 함께 늘 복되고 평안한 안식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신앙에세이

이형묵 목사
(차세대파워웨이브)

사역하면서 내 안에는 늘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한 가지 물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 사역 일정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깊이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 말씀을 읽어야

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라는 핑계가 늘 따라다녔다.

올해 여름,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캠프와 아웃리치를 다녀온 뒤에 학생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양떼를 맡은 목자라면 내가 먼저 말씀 앞에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말씀 읽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선언했다.

“매일 만나서 말씀 읽자!”

선언하고 나니 여러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신앙에도 성장을 위한 돌파가 필요했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 통독 모임의 이름을 ‘매일 만나’라고 지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날마다 필요한 만큼 공급되는 만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둘째, 말 그대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서로 만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다. 이 두 가지를 소망하며 ‘매일 만나’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 밤 10시 30분에 모여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신약 성경부터 매일 3장씩 소리 내어 읽기로 했다. 성경 속

매일 ‘만나’

다양한 인물들을 떠올리며 각 캐릭터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연기하다 보면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고, 인물들의 마음을 더 생생하게 느끼며 말씀을 읽게 된다. 학생들도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함께 읽는 이 모임 덕분에 성경이 훨씬 흥미롭고 가깝게 느껴진다고 고백했다.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짧은 강해와 함께 묵상 나눔과 질문을 올리는 시간을 가진다. ‘질문이 많이 나올까?’라는 우려와 달리 아이들의 수많은 질문으로 좀처럼 대화가 끝나지 않는다. 놀랄 만큼 깊이 있는 묵상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에 오히려 내가 당황하고 배울 때가 많다. 열정적으로 나누다 보면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솔직히 말하면 ‘매일 만나’를 시작한 이후 늦게 자니까 몸은 피곤하다. 때로는 퇴근 후 깜빡 잠들었다가 늦게 시작하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도 매일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며 삶에 적

용하기로 결단하니까 영이 살아나고, 마음은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딱 하루 치 만나만 내려주셨다. 욕심을 부려 이를 치를 쌓아두면 상해서 먹을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만나를 하루 치만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끔 하기 위한 훈련이다(신 8:3).

우리는 매일 밥을 먹는다. 육체의 배고픔은 쉽게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굶겨도 괜찮은 듯 여기고, 때로는 아예 배고픔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밥을 먹듯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리는 만나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교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빙교 용인시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살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8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 진새끼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평주시 조월읍 진새끼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앨버틴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마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올랜도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3 Higasinsaisa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 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 -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u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illegible]

소천

12/6(토) 일산파주 주영진 집사 부친상, 노진화 집사 시부상 고 주재희
12/6(토) 동차 김유미 권사 부친상, 김용덕 집사 빙부상 고 갑재영
12/6(토) 노원 박가석 집사 부친상, 남성진 권사 시부상 고 박병규
12/7(일) 영등포구로 최미영 성도 모친상, 이상주 성도 빙모상 고 이병녀
12/7(일) 송파B 이주영 성도 부친상 고 이이봉
12/8(월) 경기A 엄주길 성도 모친상 고 여점순
12/9(화) 서초A 강인국 권사 부친상 고 강철수
12/10(수) 서초B 유완영 집사 모친상 고 박하순
12/10(수) 서대문 김심숙 성도 남편상 고 최원석
12/10(수) S브릿지 김햇님 성도 부친상 고 김영선
12/11(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박지현 간사 시모상 고 장진숙
12/12(금) 강남A 전가병 집사 모친상 고 김말례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는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우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종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서울역로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료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은라인 안내
 심의주현금: 하나는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녀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태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아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알: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출판, 편집 기획자 1명, 잡지 편집자 1명
 형태: 계약직 2명(1년, 평가후 정규직 전환 가능), 주5일 근무
 지역: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세라핌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주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5시
 장소: 온누리청소녀센터 3층 소극장
 지휘: 최영은 성가사
 입단 문의: 김유미(010-3923-0416)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교회 소유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Announcement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회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배경을 성도님들과
투명하게 나누고자 함입니다.

▶매각 추진 배경 및 취지

첫째, 저효율 부동산은 교회 사역과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제 활용 용도가 거의
없어 사역을 위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저효율 부동산은 자산가치 대비 높은
관리비(세금 포함)로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저효율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교회가
향후 집중해야 할 핵심 사역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매각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씀

첫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져 왔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저효율부동산의 매각은 “자산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매각이 교회의 자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적 안정만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장 가치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회와 재정위원회, 기타 전문가들의
검토와 기도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셋째, 모든 매각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온전하게
진행되어 위 취지와 목적에 합당한 쓰임을 받고
하나님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선교재단 & 복지재단 부동산 매각 입찰 공고

[매각 입찰 공고 물건]

- 물건 1.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89외 27필지, 건물 2개동
- 물건 2.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234외 27필지, 건물 5개동
- 물건 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00외 1필지
- 물건 4.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1049-1외 2필지, 건물 2개동

- ▶매각 입찰 일정 : 공고 25.12.06 ~ 26.02.06 / 입찰서제출 26.02.03 ~ 26.02.06
- ▶매각 세부 절차 및 명세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 참조
- ▶매각 주관 : 온누리교회 재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 ▶일반 문의 : 온누리선교재단 자산관리팀 (02-3215-3134, 3136)